

‘피로 누적’ 의대교수 결국 진료 축소...환자들 어떡하나

전남대비대위 24시간 근무 후 익일 휴무...특정요일 외래진료 휴진 논의 학사 파행 장기화에 전남대·조선대 의과대학 개강 또 다시 29일로 연기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과 의과대학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선지 두달째 접어들면서 광주지역 의료현장은 마지노선에 치닫고 있다.

병원을 떠나 전공의를 대신해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전남대 의대교수들은 병원과 진료과에 52시간 근무 준수를 위한 '최후통첩'을 하고,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는 개강을 또 연기했지만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상급병원 의료진 피로감 한계=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상급병원 의료현장을 메우고 있는 전남대의대 교수들이 한계에 봉착했다.

전남대 의대 비상대책위는 지난 12일 제5차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전남대 의대·전남대 병원 비대위 권고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남대 병원과 각 진료과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24시간 연속 근무 후 익일 주간 근무를 쉬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36시간 연속근무는 지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공문에 '각과에서는 위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마무리 된것을 보면 그동안 전남대 의대 교수회의에서 결의된 '52시간 준법 근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 위험하다는 판단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측은 "일부 교수들은 24시간 뿐 아니라 36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경우까지 있다"면서 "젊은 교

수들 중심으로 교수진 모두가 전공의들의 업무를 도맡고 있어 피로도가 극에 달한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공문의 취지를 밝혔다.

의대교수가 외래진료 뿐 아니라 수술, 병동 환자 관리와 당직까지 서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과에 중환자까지 겹치면 30시간 연속 근무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두달 가까이 줄당직이다 수술까지 감내한 의대교수들은 간혹인력 추가투입으로는 의료공백의 한계를 메울수 없다고 강조한다.

상황이 이렇자 15일 열리는 전남대 병원 임상교수 회의에서 특정요일 외래진료를 배제하는 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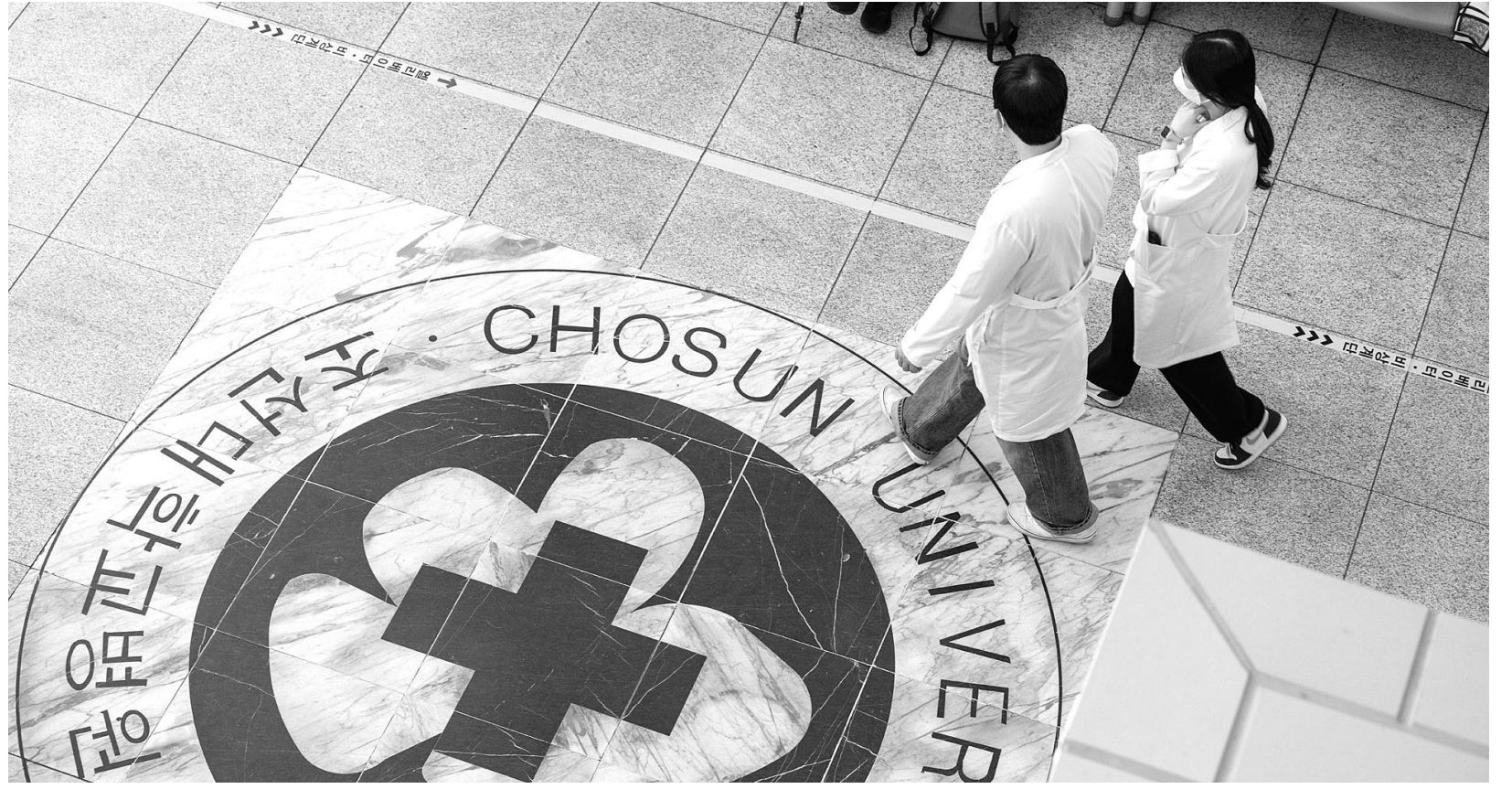
충북대 의대에서 시행에 들어간 금요일 외래 휴진 사례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자는 것이다.

조선대 비대위는 4·10 총선 이후 정부의 대응을 관망하고 있다. 총선에 패배한 정부가 의정갈등에 어떠한 대응을 내놓는지에 따라 의대교수들의 대응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대·조대 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 되나=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생들의 개강이 다시 연기됐지만, 집단유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대·조선대 의과대학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개강 날짜를 오는 29일로 늦추기로 했다. 이들 대학의 개강연기는 세번째다.

두 대학은 개강은 했지만 학생들이 집단 휴학을 신청함에 따라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일정을 두차례 연기하고도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병원 의료진들이 병원 로비를 걷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아 다시 학사일정을 또 연기한 것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16곳은 이미 수업을 개강했지만 두 대학은 최후까지 학생들 복귀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29일까지 휴학계를 철회하고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데 있다.

오는 25일까지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고 휴학계 처리가 가능하지만 교육부가 휴학 처리를 금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29일 개강에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생들은 유급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두 대학은 '집단유급 데드라인'인 이달 말 전에서

태가 해결되면 야간수업과 방학기간 계절수업 등을 총동원해 수업 시수와 일수를 맞춘다는 방침이다.

전남대 관계자는 "학사 일정을 고려해보면 29일에는 개강을 해야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며 "부족한 수업은 주말이나 여름방학때 계절수업 등을 통해 채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험 15개 집중 가입...수천만원 보험금 탔다면?

법원 "10년간 보험료 1900만원 내고 5900만원 수령...부정수급 아냐"

2년만에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 12건 등 총 15건에 가입하고 9년 동안 85차례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아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부정취득에 해당할까.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의영)는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우체국 보험 등 총 15건 이상(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은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0년 5월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2019년 7월까지 모두 85회에 걸쳐 입원치료 또는 수술을 받았고 총 59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우체국보험사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A씨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과도한 보험금을 부담했고, 고의사고와 허위 입원이 의심된다'며 소를 제기했다.

부담보험금을 부정취득한만큼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36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보험 체결 당시 아내와 함께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매년 3200~7500여만원의 수입소득을 올려 월 96만원의 보험금이 부담되지 않았다는 점과 10년동안 A씨가 19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5900여만원을 수령한 것은 현저히 과다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진료기록상 입원기간(2010~2019년 총 1123일) 중 무단 외출은 단 2일에 불과할 뿐이고 A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의 원장이 과다입원과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받아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으나 교통사고 발생 자체는 인정되고 고의·허위사고로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찰청장 경고에도...광주 경찰 또 음주운전

올해 벌써 5건...기강 확립 필요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올해 들어 광주 경찰의 음주운전은 벌써 5건째다. 최근 잇따른 경찰 음주운전으로 지난 11일까지 경찰청 '특별 경보'까지 내려졌는데, 경보 기간이 끝나자마자 고질병이 재발했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8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중인 앞차를 들어받은 광주동부경찰 소속 A경감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경감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경감은 음주운전에 앞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경감에 대한 직무 해제 및 징계위원회의 회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9시 20분께에는 광주서부경찰 소속 B경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서구 금호

동 금호교차로에서 앞차를 추돌했다. B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2%였다.

지난달 1일에는 광주서부경찰 C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 남구 봉선동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과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C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일에는 광주서부경찰 D경사가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됐으며, 지난 1일에는 광주북부경찰 E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 잠들어 경찰에 붙잡혔다.

이따른 경찰 음주운전 비위에 경찰청은 내부적으로 '음주 금지'를 호소하는 등 대처에 나섰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특별경보 1호를 발령했다. 광주경찰청 소속 6개 직장협의회도 지난달 8일 "4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음주 금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호소문을 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마약 밀반입 상습 투약

내·외국인 등 6명 적발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상습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 수사대는 내국인 남성 3명과 외국인 여성 3명 등 총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필리핀에서 구매해 국내에 밀반입한 마약류를 서울·충남·전남 등 전국 호텔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40대 남성 3명은 20대 외국인 여성 3명과 함께 호텔 등 숙박업소와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상습투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내국인 남성 한 명이 필리핀에 있는 클럽에서 마약류를 구매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여성 3명 중 2명은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이들은 국내 마사지업소에 고용된 카자흐스탄 국적 등의 외국인이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약 유통 총책·유통책을 비롯해 투약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